

어린이책 들춰보기

파랑새 이야기

신지식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 / 46면 / 1300원

「감이 익을 무렵」「바람과 금잔화」 등의 이야기로 어린이들과 친숙한 할머니동화작가 신지식 선생님의 최근작.

나무와 꽃, 별과 달, 바람과 눈 등 말이 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사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정히 대화를 나누다보면 오랜 친구만큼이나 가까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파랑새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세계, 진실로 귀한 이야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내면을 응시할 때야 발견된다는 비밀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운다.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

고은 엮음
동쪽나라 / A5 / 224면 / 2500원

동양과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린이들의 지혜를 길러줄 이야기 67편을 가려 뽑아 묶었다.

각 나라의 민담과 설화, 그리고 불경과 성경, 위인전, 탈무드, 장자, 노자, 논어 등에서 고른 '슬기로운 이야기' 들에는 대통령의 초청보다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의 선약을 더 소중히 여긴 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비롯해,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광야를 헤매다니는 소년의 이야기 등 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중한 깨우침이 편편마다 담겨 있다.

조제에겐 너무 힘들어

뤼시앙 로장블라 지음 / 김남주 옮김
현암사 / A5신 / 152면 / 3000원

어른들의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파리기리를 뛰쳐나온 열한살짜리 시골소년 조제의 이야기.

얼핏 문제아로 보여지기도 하는 조제의 순수하고 맑은 행동을 통해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하는 여러 제한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조제는 「간혀 있는 아이」라는 글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다 인격적으로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참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진정한 의미의 교육, 진정한 의미의 학교'에 대해 생각해 한다.



귀여운 꽃도둑

오세발 지음 / 박영신 그림
현암사 / A5신 / 192면 / 2800원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세상보는 바른 눈을 길러줄 사회성 짙은 동화를 줄곧 써왔던 작가의 단편동화 19편 모음.

정교하게 만든 예쁜 조화로 온통 단장되어 있는 한 정신병원에 어느날 꽃도둑이 찾아온다. 밤이면 남몰래 나타나 꽃병 속의 조화를 향기로운 들꽃으로 바꿔치기 놓고 달아나버리는 이 도둑 때문에 병원 안을 온통 술렁거린다. 어느날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그만 잔디위에 떨어져 붙잡히게 되는 이 꽃도둑은 다름 아닌 '조화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초의 조화발명가임이 밝혀지는데…….

까치노을

이정석 지음
동화문학사 / A5신 / 142면 / 2800원

“바닷가 아이들에게/바다가 어떤 빛깔이나 묻는다면/살래살래 고개만 흔들 겁니다// 파랑이라고 말하는 건/그림책에 실린/움직이지 않는 바다그림을 보았기 때문이고//초록이라 말하는 건/사진첩에 끼워진/소리나지 않는 바다사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바다빛깔은 중에서)

바람, 뒷산, 눈발, 감나무, 홍시, 참새 등 친근한 자연소재들로 동시를 지어왔던 전남 서호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석 시인의 동시집. 참신한 이미지와 상징적 수법으로 시적 대상을 폭넓게 그려냄으로써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읽는 것과 같이 따스함을 선사한다.



거림할아버지의 희망사항

김영희 지음
한국서적공사 / A5신 / 158면 / 2000원

수한이네 동네에 '영민상회'라는 구멍가게를 차리고 새로 이사온 한 할아버지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달랑 들고 찾아오는 수한이 친구들에게 더할수 없이 고마운 친구이다. 호빵 하나에 사랑까지 덤으로 주면서도 꼬마들의 짓궂은 장난도 늘 "거림 거림"이라며 받아주는 바람에 별명이 거림할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꼭두새벽부터 밤늦도록 공휴일도 없이 가게문을 열어두어 마을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인심좋은 거림할아버지에겐 그러나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 명절만 되면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을 소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수한이에게 '분단'의 아픔이 무언지를 어렵듯이 알게 한다.

배꼽장군

심경석 지음 / 임성은 그림
지경사 / A5신 / 208면 / 2500원

남달리 돌아나온 배꼽이 그만 친구들에게 들켜버려 '배꼽장군'으로 불리는 명산 국민학교의 별난아이 허장군. 친구들의 놀림에도 아랑곳않고 떳떳하게 행동하며 배짱과 재치로 재미난 사건들을 일으켜 선생님을 골탕먹이기도 하는 허장군이지만 가난한 친구, 놀림받은 친구들의 편에 서는 의리의 꼬마신사이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어른들은 몰라요//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지/어른들은 몰라요”

신체의 단점을 극복하여 정의로운 어린이로 커가는 허장군과 그 친구들 이야기.



내 친구 깨치 I

주경희 지음 / 최달수 그림
서강출판사 / A5신 / 166면 / 2500원

국민학교 5학년에 불과하지만 방과후 백화점 주차장에서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용감한 소년 찬돌. 하루 8시간의 세차아르바이트를 어렵다 않고 해내는 데는 찬돌이의 장래희망이 자동차발명왕이기 때문. 주차장 터에는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아름답고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찬돌이는 주차장 앞의 신기료장수 할아버지에게서 그 나무에 얽힌 도깨비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린 도깨비의 무고한 죽음을 안타까와하던 찬돌이 앞에 어느날 문득 깨치라는 어린도깨비가 나타나는데... 동명의 TV 어린이드라마를 책으로 펴낸 것.